

## 중학생들의 음주기대와 음주기대 관련 요인

김용석·윤혜미\*

본 연구는 청소년 음주행동의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알려져 있는 음주기대가 중학생들에게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고등학생 집단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이들의 음주기대형성에 관련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청소년 음주예방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음주기대는 개인이 실제로 음주를 시작하기 이전에 형성된다는 지적을 고려할 때 어떤 요인들이 청소년의 음주기대 형성과 관련이 있는지를 밝혀 청소년 음주를 예방하고 음주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고위험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조기개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 7개 대도시(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소재의 중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을 성별, 학년별, 지역별로 층화표집하여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음주기대 측정도구로는 크리스찬센(Christiansen et al., 1989) 등의 알코올 기대 설문-청소년 유형(AEQ-A)이 사용되었다. 조사 결과 긍정적인 음주기대를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들과 달리 중학생들은 음주의 효과에 대한 부정적 기대를 보여주었으며 이들의 음주기대 형성에는 선행연구들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가족력, 대중매체의 술 광고, 연령, 성, 음주경험이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집단이 고등학생 집단에 비해

\* 김용석(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부 사회복지전공 조교수).  
윤혜미(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상대적으로 음주경험은 적지만, 음주행동이 시작되는 연령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긍정적인 음주기대에 경도되지 않도록 관련 요인을 고려한 다각적인 예방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1. 문제제기

최근 들어 사회복지학계에서도 성인 및 청소년 음주와 관련된 연구가 이전에 비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성인의 음주보다 사회복지적 개입이 용이한 청소년 음주와 관련된 연구논문들이 발표되어 왔다. 청소년 음주와 관련해서 발표된 논문들을 살펴보면, 청소년 음주의 예방을 위해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김용석, 1999; 김용석 등, 2000), 음주문제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서 다양한 정신증상을 경험하고 있고 특히 음주문제가 있는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서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김용석, 1999)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발표된 논문들의 특성 중의 하나는 청소년의 음주에 대한 기대와 관련된 연구이다. 음주에 대한 기대는 알코올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연구가 활발한 국외에서는 음주행위 및 음주문제를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음주에 대한 기대를 들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조사를 실시한 윤혜미 등(1999)의 연구에서 음주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술을 자주 그리고 많이 마시며 음주로 인한 문제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음주에 대한 기대와 유사한 개념인 음주동기(*drinking motives*)를 연구한 논문 두 편(김용석, 2000; 장승욱, 2000)에서도 대처수단(부적절한 감정을 다루거나 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음주를 하는 경우)으로서의 음주동기가 청소년과 대학생의 음주행위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의 다수의 연구를 통해 음주에 대한 기대와 청소년의 음주행위와의 관계가 밝혀진 이상, 앞으로는 단순히 두 변인들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보다는 효과적인 예방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음주기대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음주기대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개인이 실제로 음주를 시작하기 전

에 음주기대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음주를 시작하기 전에 음주에 대한 기대가 형성된다면 어떤 요인들이 청소년의 음주에 대한 기대의 형성과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 연구는 청소년의 음주를 예방하고 음주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고위험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이들에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최근까지 발표된 청소년 음주를 주제로 한 대부분의 연구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음주를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연령이며 상대적으로 예방효과가 높은 중학생의 음주기대와 관련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등학생에 비해 정기적으로 음주를 하는 비율이 낮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음주에 대한 기대를 고등학생의 음주기대와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중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음주기대의 성격을 파악하고 음주기대와 관련 있는 요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1) 음주기대

청소년 음주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이 거론되면서 예방의 중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성인이 되기 전에 음주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면 성인이 된 후에도 알코올로 인한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급속히 낮아지기 때문인데 효과적인 예방을 위한 음주예측변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측변인으로는 가족력과 음주 효과에 대한 기대, 대처방식, 음주동기 등이 알코올 사용과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다(Connor et al., 2000; Cooper et al., 1988; Evars et al., 1995; Goldman et al., 1991; Oei et al., 1998). 이 중에서도 음주기대와 알코올 소비 사이의 관계는 다양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들로부터 지지되고 있다(Baldwin et al., 1993; Connor et al., 2000; Goldman et al., 1987).

기대이론은 기억에 기초한 인지적 학습이론(*cognitive social learning theory*)이라 할 수 있다(Bandura, 1977). 인지-사회학습 이론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변수 중 하나가 기대라는 개념인데, 기대(*expectancy*)란 특정 행동에 대한 특정 결과의 관계에 대한 인

식(Smith et al., 1995)이라고 정의되며 태도, 신념, 속성(attribution)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Goldman et al., 1987). 사람들의 신념 또는 결과에 대한 기대는 행위 자체의 실제 결과보다 개인의 행동을 예언하는 데 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 학습된 기대란 자극 사건들간의 유관 및 행동과 결과 사이의 유관에 대해 예측하게 하는 지식을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어떤 행위에 대해 특정 결과가 연관되어 있다는 반복된 인식이 행위와 결과의 관계를 기대라는 형태의 기억으로 저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저장된 연관성이 미래의 행동을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고 보상을 받게 되는 행위를 할 개연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인지적 사회학습모델을 음주행위에 적용하면(Abrams et al., 1987) 음주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개인의 음주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음주와 관련해서 기대를 적용하여 보면 술을 마시는 행동은 긴장이 완화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관계를 개인이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대형성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개인의 경험, 즉 음주와 음주 결과와의 관계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며, 개인의 음주 경험은 그 개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게 하며 알코올을 남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음주의 효과에 대한 연상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의 음주행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되며 음주로 인한 경험을 긍정적인 강화로 인식한 개인은 그 행동을 더 하게 되리라는 것이다(Smith et al., 1995). 음주기대는 알코올 사용과 남용의 사회학습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크리스찬센과 골드만(1983)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술에 대한 기대가 인종, 종교, 음주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음주습관과 같은 개입 배경 변인들보다 더 정확하게 음주행동을 예언한다고 하였다. 사회적 행동이 향상된다는 기대는 사교성 음주를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인지운동 기능이 향상된다는 기대는 청소년의 문제성 음주를 예측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 브라운(1985)은 대학생의 경우 긴장감소의 기대가 문제성 음주를 잘 예측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알코올 중독 환자에게 있어서도 술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치료중의 탈락 여부를 예측하게 한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홍종필(1989)이 대학생 집단의 경우 음주기대가 음주행동을 매개하고 긍정적인 음주기대가 대학생의 알코올 남용 및 문제 음주를 지속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김금희와 박상학(1996)도 긍정적인 음주기대를 가진 사람들은 과음의 경향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음주기대를 가진 사람들은 음주를 절제함으로써 문제음주자가 될 가능성

이 적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윤혜미 등(1999)의 연구와 김용석(2000)의 연구 역시 음주기대가 높은 청소년들이 음주문제 경험도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음주기대에 대한 연구는 알코올의 효과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교육이나 훈련과 같은 방법으로 수정 가능한 변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즉 문제 음주자들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에서 알코올의 효과에 대한 기대를 교정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음주기대가 아동기에 발달하며, 청소년기의 음주 및 문제성 음주와 관련된다는 연구결과들(Christiansen et al., 1983; Christiansen, et al., 1989) 음주기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청소년기의 알코올 소비의 유의미한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예방의 중요한 전략을 일러주는 것이다. 국내연구로는 류경희(1998)가 음주기대가 청소년기 문제성 음주의 시작을 예측하였으며 음주기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알코올 소비의 유의미한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음주기대가 발달하는 과정 및 어떻게 음주기대가 음주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또는 기대가 음주행동의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정확히 설명하는 이론은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아마도 음주기대의 차이는 실제 개인의 음주경험의 차이에서 기인하거나, 음주의 사회적 맥락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일 것이다. 기대이론에 의하면 초기에 형성된 음주효과에 대한 기대는 환경요인과 음주를 경험한 후 알코올의 직접적인 약리학적 효과에 의해 강화된다(Oei et al., 1998).

크리스찬센과 골드만(1983)은 세 연령 집단(12~14세, 15~16세, 17~19세)의 술에 대한 기대가 이들의 다양한 음주경험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있게 나타났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음주기대가 가족, 종교적 훈련, 대중매체와 술 광고 등을 통해 축적된 청소년기의 경험으로부터 형성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부모나 친척의 음주, 또래와 대중매체 역할모델이 음주에 대한 가치와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Beck et al., 1993; Goldman et al., 1987) 음주행동이 일어나는 사회적 맥락에서 모방행동이 음주기대를 형성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Abrams et al., 1987).

## 2) 음주기대 형성과 관련 있는 요인

### (1) 사회적 영향(social influences)요인

#### ① 가족력

Bandura (1977)는 대부분의 인간의 행동은 모델링(*modeling* 또는 *vicarious learning*)을 통해서 학습되는 것으로, 특히 타인의 행동이 긍정적인 결과와 연결되거나 (Bandura, 1977) 관찰대상인 역할모델이 관찰자가 존경하는 인물(예: 부모)일 경우 모델링의 효과는 커져 관찰한 행동에 대한 기대가 강화되고 유지되는 것으로 주장한다. 이를 청소년의 음주기대와 연결시켜 보면, 부모가 음주에 대해 갖는 태도, 부모의 음주행위 등이 자녀의 음주기대의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알코올중독과 같이 부모가 음주문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 자녀는 부모의 음주행위에 노출되는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관찰을 통한 음주행위 학습기회가 그만큼 많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외국의 선행연구들은 부모와 자녀가 유사한 음주습관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관찰을 통한 행동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Ahmed, 1984). 알코올중독자 자녀의 경우 술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이들의 알코올 소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연구자들은 알코올중독 부모의 자녀들이 특정유형의 음주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들은 알코올 문제가 없는 부모의 자녀들에 비해 알코올의 수행 증진효과(술을 마시면 일을 더 잘 할 수 있다는 등의 효과)에 대한 기대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고(Brown, 1985) 사회적·신체적 쾌락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 이양원(1995)은 남자 성인의 경우 문제 음주 가족력이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충동성이나 음주기대와 음주문제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 ② 대중매체의 영향

청소년의 음주기대의 형성과 관련이 있는 사회적 환경으로 대중매체(TV)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술 광고가 알코올 소비 및 음주자의 태도와 음주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은 실제 일부 국가에서는 술 광고 금지, 또는 술 광고에 경고문구의 삽입 등 다양한 통제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술 광고에 대한 이러한 통제나 제한은 술 광

고 자체의 설득적 능력뿐 아니라 광고가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는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청소년 음주자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이기도 하다(Kelley et al., 2000). 립맨(1991)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인의 73%가 술 광고를 미성년자의 음주의 중요한 기여요인으로 여기고 있다고 하였다.

최근의 술 광고는 제품 자체에 대한 광고보다 이미지 광고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미지 광고가 청소년에게 특히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지 광고는 술 자체의 내적 가치보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초점을 맞추는데(Snyder et al., 1985), 술을 마시면 광고에 나오는 사람들과 동일한 멋진 생활을 즐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술 광고는 일반적으로 사교성을 향상시키고, 즐겁고, 긴장을 감소시키거나 문제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음주를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재인용 Abrams et al., 1987). 술 광고를 밤 10시 이후에 상영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TV 시청이 일상생활의 한 부분임을 고려한다면 청소년들의 경우 술 광고에 노출되어 있고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음주장면을 접하게 된다. TV에 비취지는 알코올의 초상(*Alcohol portrayal*)은 음주에 대해 부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실제로 청소년의 음주가 이로 인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Grube, 1983).

애트킨 등(1984)은 실제로 술 광고에 대한 노출과 청소년들의 알코올 소비에 대한 자기보고간에는 중요한 관련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직까지 술을 마셔보지 않은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술 광고에 과다하게 노출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동년배들에 비해 미래에 술을 마시겠다는 의사표현이 높았다는 것이다. 그루브(1983)의 연구에 의하면 술 광고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술 제조사나 브랜드 명, 광고 문구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동시에 그렇지 않은 동년배에 비해 음주에 대해 긍정적인 신념을 갖고 있다고 한다. 긍정적인 신념은 성인기로 접어들면서 이들의 음주 의도를 증가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술 광고는 청소년들의 음주기대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원인중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술 광고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들은 알코올에 대해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음주를 시작하거나 어떤 특정한 브랜드를 선택하지 않은 청소년들로 밝혀졌다(Grube, 2000). 애트킨 등(1981)도 술 광고에 많이 노출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동년배들보다 음주자는 매력적이고 운동도 잘하고 성공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술의 효과에 대해 보

다 호의적인 신념(술을 마시면 긴장이 완화된다 등)을 갖고 있어 청소년의 음주에 대해 수용적이며 또래집단보다 음주를 하는 경향이 많고 많이 마시며 때로 음주운전과 같은 위험한 상황도 더 쉽게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Atkin et al, 1984).

전반적으로 앞으로 음주의도가 있는 청소년들이 술 광고에 호의적이었으며 성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13세에서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브(2000)의 연구에서는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들이 이미지에 중점을 둔 술 광고를 더 선호하고 있으며 특히 7학년(중학교 1학년)에 속하는 연령대의 청소년들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반면 8세에서 16세를 대상으로 조사한 코벨(1992)은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보다 이미지 광고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하여 일관성이 부족하다. 그러나 두 연구 모두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이 술 광고의 영향으로 긍정적인 음주기대를 갖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음주가 청소년 또래집단에서 사회적으로 허용되고 있고, 사회가 술 광고 등을 통해 음주를 강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청소년의 음주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위험수준에 달할지도 모른다. 이미 다수의 연구(Aitkin et al., 1988)들이 청소년이 술 광고에서 매력을 느끼는 요소들에 대해 지적하고 있으므로 음주가 가져오는 긍정적 결과를 더 이상 과장하지 않고 금주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광고 등을 통해 청소년의 음주기대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역광고는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이는 주로 프로그램 중심이거나 음주운전, 태아알코올 증후군과 같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매력적이고 밝은 청소년들이 음주가 아닌 대안활동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는 보다 장기적이고 양질의 TV 캠페인이 필요하다. 또 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이미지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갖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주류산업체들이 광고의 내용을 보다 상품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2) 일반적 특성

### ① 성

청소년 음주에 있어 남녀의 차이는 비교적 변별력이 있는 변수이다. 최근 여자 청소년의 음주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여전히 남자 청소년의 음주경험이 여자 청소년보다 통



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많고 음주빈도, 음주량, 폭음빈도, 문체음주의 경험 등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윤혜미 등, 1999; 장승옥, 2000). 이러한 경향은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여서 와다 등(2000)은 남자중학생은 80.4%, 여자 중학생은 75.9%가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남자 청소년이 음주율에서 여자 청소년보다 앞서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일관성 있는 결과는 아니지만, 성에 따른 음주기대의 차이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국내연구에서도 윤혜미 등(1993)은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녀의 차이는 음주기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보다 사교성, 공격성, 성적인 기능 강화, 긴장감소 등에서 모두 높은 기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운 등(1980)도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음주 후 공격적인 행동을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Connor 등(2000)과 Young과 Oei(1996)도 술을 마시면 자기주장력이 강화된다는 음주기대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더 강하게 발견된다고 지적하였다(Gonnor et al., 2000; Young et al., 1996). 이는 남자들의 음주가 더 허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적인 분위기의 영향과 남성들에게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행동과 태도를 요구하는 사회규범 때문이라고도 생각된다. 그러나 남녀 차이와 음주기대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된 것은 아니어서 어떤 연구자들은 여자 청소년이 음주에 따른 긍정적인 사회적 경험을 기대한다고 지적하고 있다(Brown et al., 1985).

## ② 연령과 음주경험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음주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도 높아진다. 이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음주경험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청소년들은 혼자서 음주를 하기보다는 또래와 어울리면서 또래의 영향을 받아(Brook et al., 1983; Kardel, 1984) 음주가 사교와 긴장감소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믿게 된다. 크리스찬센 등(1983)은 음주로 인한 긴장감소에 대한 기대가 12세 정도부터 이미 형성되어 청소년기 후기까지 지속된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들은 나이가 들수록 부모나 어른이 아닌 다수의 또래 청소년과 집이 아닌 곳에서 음주를 하는 경향이 높다. 특히 청소년들은 아주 가까운 친구들을 포함한 동료들의 음주규범과 음주기대 및 음주행동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Budd et al., 1984;

Bundra et al., 1988; Hansen et al., 1988).

불론 청소년들은 연령증가와 함께 음주경험의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음주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여 부정적 기대를 형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행동기능의 손상이나 부주의/무책임성 같은 사회적인 결과는 기대된 긍정적 결과에 비해 시간상으로 지연되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기대된 강화요인이 음주행동을 결정하는 데 더 우세하게 작용하기 쉽다(홍종필, 1989). 인간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실제 결과보다는 예상되는 결과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즉 음주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음주의 부정적 효과를 압도하기 때문에 연령과 음주경험의 증가에 따라 음주기대는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되기 쉽다. 이러한 지적들을 고려할 때 음주행위가 증가하고 음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고착되기 이전인 초기 청소년기에 대한 음주기대를 비롯한 음주예방노력이 개진될 필요가 있다.

### ③ 예방 교육

술에 대한 기대의 형성은 음주행동의 시작에 선행하고(Christiansen et al., 1983) 따라서 음주에 관한 개인의 의사결정 및 음주를 할 때의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음주초기 단계의 기대는 부모나 대중매체와 같은 대리학습의 경로를 통해 발달하게 되고 계속되는 음주는 술에 대한 기대를 정교화시키게 되어 이렇게 정교화된 음주기대는 개인의 미래의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술에 대한 기대가 음주행동을 매개하고 술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과음 및 문제성 음주행동을 지속시키고 결국은 알코올중독으로 발전하게끔 만드는 위험요인이라고 가정할 때 이런 기대의 적극적인 교정은 문제성 음주유형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인지구조는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코올 남용의 예방적 전략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알코올의 효과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대는 교육이나 훈련과 같은 방법으로 수정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한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문제 음주자들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에서 알코올의 효과에 대한 기대를 교정하는 것뿐 아니라 아동기에 이미 시작되는 음주기대를 교정하기 위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이 시급하다. 이미 알코올중독이나 문제음주자가 된 후에는 음주기대가 음주결정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를 상기할 때 음주를 시작하지 않은 청소년과 사회적

음주의 수준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음주기대의 수정을 포함한 예방교육은 음주문제 예방의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 연구방법

#### 1) 조사대상자 및 표집

전국 7개 대도시(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소재의 중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을 성별, 학년별, 지역별로 층화표집하여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조사기간은 1998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 사이로 설문지는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각 학교에 직접 배달하고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에는 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내고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2) 조사도구 및 측정

본 조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음주기대와 음주기대와 관련 있는 요인들을 묻는 문항들을 포함하였다. 음주기대는 음주의 효과나 음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음주자가 갖는 믿음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크리스찬센(Christiansen et al., 1989) 등의 알코올 기대 설문-청소년 유형(AEQ-A)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알코올 기대 설문-청소년 유형은 12세부터 19세의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척도로 90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청소년 음주유형을 예측하는 중요한 척도로 활용되어 왔다(Christiansen, et al., 1989). 윤희미 등(1999)은 AEQ-A 중 우선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적합하다고 보이는 문항을 선별하고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16문항으로 청소년의 음주기대를 측정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윤희미 등이 사용한 음주기대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각 하위영역(공격성, 사교성, 성적 기능강화, 긴장감소)의 신뢰도는 .80, .80, .71, .67로 양호하였다.

음주기대와 관련 있는 요인은 사회적 영향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구분되는데 사회적 영향으로는 음주문제를 지닌 가족 또는 친척의 유무와 대중매체 속의 술

광고의 영향의 정도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였고 일반적 특성으로는 음주경험, 음주 및 약물남용예방 교육의 경험, 성, 연령을 포함하였다.

### 3)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방법은 첫째, 빈도분석을 통해 중학생들의 음주기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고등학생의 음주기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연령층 청소년의 음주에 대한 기대를 분석하였다. 둘째, 문헌고찰을 통해 선별한 요인에 따른 음주기대의 차이를 t 검증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4.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1,164명이 본 조사에 포함되었으며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학년별 분포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남학생이 전체의 49.4%를 차지하였고 여학생이 50.5%를 차지하여 성별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조사대상자중 1명이 응답을 하지 않아 총 사례수가 차이가 있음). 학년별 분포도 성별분포와 마찬가지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1학년이 36.2%, 2학년이 33.7%, 3학년이 30.2%를 차지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N	%
성	남학생	575	49.4
	여학생	588	50.6
	전체	1163	100.0
학년	1학년	421	36.2
	2학년	392	33.7
	3학년	351	30.2
	전체	1164	100.0

2)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1) 음주기대

〈표 2〉는 음주기대척도의 문항별 빈도분석결과를 윤희미 등(1999)이 보고한 고등학생의 결과와 비교하고 있다. 각 문항에 대해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과 순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통제력을 잃고 충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가 중학생과 고등학생에서 모두 1순위와 2순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문항들을 비교해 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음주에 대해서 갖는 기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게 해준다’, ‘모임을 더 재미

〈표 2〉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음주기대

내 용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과 순위			
	중학생		고등학생	
	%	순위	%	순위
사람들이 통제력을 잃고 충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64.5	1	78.9	1
싸움에 쉽게 끼어들게 한다	51.5	2	50.0	6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51.2	3	46.5	7
자신문제를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해준다	45.0	4	50.2	5
모임을 더 재미있게 해준다	39.4	5	70.8	3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게 해준다	39.0	6	74.3	2
자신의 학교생활에서 오는 고민을 잊어버릴 수 있게 해 준다	37.9	7	44.7	8
깨뜨리고 부수고 싶은 기분이 든다	35.0	8	32.8	15
자신이 좀 더 강해지는 느낌이 든다	31.8	9	34.0	13
사람들을 더욱 친근하게 느끼게 해준다	30.4	10	64.2	4
이성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27.7	11	32.9	14
다른 사람들에게 내 주장을 내세우는데 도움을 준다	26.2	12	39.8	10
더 로맨틱하게 느낀다	20.8	13	35.0	12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진다	20.7	14	39.1	11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가 더 쉬워지고 세상이 좋아 보인다	17.6	15	42.6	9
성경험을 더 쉽고 즐겁게 해준다	15.5	16	22.9	16

있게 해준다', '사람들을 더욱 친근하게 해준다'가 각각 2, 3, 4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세 문항 모두 음주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표현하는 문항들이다. 반면, 중학생의 경우 '싸움에 쉽게 끼여들게 한다',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가 2순위와 3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상위 3순위의 내용이 모두 음주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와 관련된 내용으로 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음주경험이 적은 중학생의 경우 음주에 대해서 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를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해준다'(4순위)에 45.0%가, '자신의 학교생활에서 오는 고민을 잊어버릴 수 있게 해 준다'(7순위)에 37.9%가 '그렇다'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음주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중학생들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2) 음주기대형성과 관련 있는 요인의 기술통계

서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음주에 대한 기대는 다양한 요인과 관련이 있다. 여러 가지 요인 중 본 연구에서는 성과 학년이의에 음주경험 유무, 예방교육의 유무, 음주문제를 가진 가족의 유무, TV와 같은 대중매체의 영향을 포함하였다. 음주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7.5%로 과반수를 약간 넘었으나 조사시점까지 음주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중학생도 42.5%나 차지하였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과 같은 또래 청소년의 대부분이 음주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이러한 인식이 그들의 음주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거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자가 음주경험이 없다는 본 조사결과를 음주예방교육시 청소년에게 전달하는 것도 또래 음주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한편 음주문제를 가진 가족 또는 친척의 유무에 '있다'로 응답한 비율이 18.0%로 10명중 약 2명의 중학생이 음주문제가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약물남용 예방교육의 경험유무는 거의 과반수가 교육을 받았다고 하였고 예방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학생도 과반수여서 아직까지도 음주 및 약물남용 예방교육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TV나 잡지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한 술 광고를 보고 음주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다수의 중학생이(71.5%) 전혀 느끼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나, 약 30% 정도가 음주욕구가 있었다고 응답하여 대중매체의 술 광고와 청소년 음주 또는 음주기대와의 관계에 대한

〈표 3〉 음주기대와 관련 있는 요인의 빈도분석

요인	구분	N	%
음주경험 유무	유	667	57.5
	무	494	42.5
약물남용예방교육 경험	유	550	48.1
	무	593	51.9
음주문제를 가진 가족의 유무	있다	187	18.0
	없다	851	82.0
대중매체를 통한 음주욕구	언제나	32	2.8
	가끔	289	25.6
	전혀 없다	807	71.5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 3) 음주기대와 관련요인 간의 관계

#### (1) 음주문제를 지닌 가족의 유무와 음주기대

음주기대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형성되기도 하나, 존슨(Johnson, 1990, 재인용 Zucker et al., 1994)은 사회적 영향을 청소년의 음주기대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중의 하나로 언급하고 있으며, 엘리스 등(Ellis et al., 1997)은 음주기대는 어린 자녀가 부모의 음주행위를 관찰하면서 형성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형성된 음주기대는 알코올중독자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음주문제를 가지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음주문제와 자녀의 음주기대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경험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나(Ellis et al., 1997), 부모의 음주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는 음주와 관련된 정보를 일찍 습득하게 되며(Zucker et al., 1994), 음주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Ellis et al., 1997).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를 음주문제를 지닌 가족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고 두 집단의 음주기대의 차이를 비교하였는데 사교성과 성적 기능의 향상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4〉). 두 영역에서 모두 음주문제를 지닌 가족 또는 친척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음주문제를 지닌 가족 또는 친척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보다 술을 마

〈표 4〉 음주군제를 지닌 가족 또는 친척의 유무에 따른 음주기대의 차이

	공격성		사교성		성		긴장감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그렇다	2.80	1.89	2.23	1.77	0.93	1.08	1.06	0.87
전혀없다	2.52	2.00	1.18	1.52	0.53	0.90	0.74	0.87
t 값	2.11*		9.70***		6.21***		5.32***	

\*  $p < .05$ , \*\*  $p < .01$ 

시면 사교성이 향상되고 이성 친구와의 관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어느 정도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고 있다.

### (2) 술 광고와 음주기대

TV나 잡지와 같은 대중매체 속의 술 광고를 보았을 때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를 어느 정도 느끼느냐는 질문에서, 언제나 또는 가끔 느낀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하여 전혀 음주욕구를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와 비교하였다. 결과를 보면 음주기대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두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이 결과는 Lowery(1980, 재인용 Abrams et al., 1987)가 언급한 것처럼 대중매체 속의 술 광고 및 음주장면이 음주를 사교성을 향상시키고, 즐겁고, 긴장을 감소시키거나 문제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성과 음주기대

성과 음주기대와 관련된 결과(〈표 6〉)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음주기대의 4가지 하위영역 모두에서 여학생의 평균값이 남학생의 평균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격성, 사교성, 긴장감소의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여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들의 경우 음주에 대해 부정적인 기대를(공격성) 갖고 있는 반면, 술을 마시면 대인관계가 향상되고(사교성)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된다는 기대(긴장감소)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윤희미 등(1999)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매우 대조적인 결과로서 고등학생의 경우 음주기대 전 영역에서 남학생의 평균값이 여학생의 평균값보다 높



〈표 5〉 술 광고에 대한 음주욕구 유무에 따른 음주기대의 차이

	공격성		사교성		성적 기능강화		긴장감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유	2.87	1.94	1.78	1.83	0.84	1.00	0.95	0.89
무	2.59	1.97	1.42	1.63	0.63	0.98	0.84	0.88
t 값	1.71		2.64**		2.59*		1.57	

\* p<.05, \*\* p<.001

〈표 6〉 성별에 따른 음주기대의 차이

	중학생							
	공격성		사교성		성적 기능강화		긴장감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남학생	2.39	1.98	1.27	1.60	0.62	1.00	0.71	0.85
여학생	2.79	1.95	1.64	1.72	0.67	0.95	0.94	0.89
t 값	-3.36***		-3.75***		-0.89		-4.52***	
	고등학생							
	공격성		사교성		성적 기능강화		긴장감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남학생	3.55	2.11	2.91	1.78	0.96	1.15	0.96	0.90
여학생	3.28	1.98	2.68	1.77	0.76	1.02	0.84	0.91
t 값	2.60**		2.73**		3.75***		2.82**	

\*\*\* p<.001

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중학생의 평균값이 고등학생의 평균값보다 낮음을 알 수 있어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술의 효과에 대해 덜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자 중학생의 평균값은 남자 고등학생의 평균값보다 음주기대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낮았으나, 여자 중학생의 긴장해소 영역의 평균값이 여자 고등학생의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4) 연령 • 음주경험과 음주기대

학년예 따른 음주기대의 차이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는데 음주기대의 하위영역 중

〈표 7〉 학년에 따른 음주기대의 차이

	공격성		사교성		성		긴장감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학년	2.49	1.98	0.93	1.40	0.56	0.91	0.71	0.83
2학년	2.53	2.04	1.58	1.70	0.65	1.02	0.89	0.92
3학년	2.79	1.89	1.96	1.77	0.74	0.99	0.91	0.88
F 값	2.45		39.14***		3.20*		6.53**	

\* p&lt;.05, \*\* p&lt;.01, \*\*\* p&lt;.001

에서 사교성, 성적기능 강화, 긴장감소의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 영역의 집단간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각 평균값이 일관성 있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학년 학생들이 저학년 학생들에 비해 음주는 타인과의 관계향상에 도움을 주고, 이성과의 관계도 더 로맨틱하게 만들며, 개인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준다고 기대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 음주와 관련된 다수의 논문을 분석한 존스톤(Johnstone, 1994)은 연령을 청소년의 음주 및 약물사용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중의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술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본 조사의 결과는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술과 관련된 사회적 영향, 특히 사회적 관계의 중심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또래와의 관계로 이동하게 되고 그로 인해 친구의 압력, 친구의 음주행위의 관찰 등의 요인에 노출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자를 음주경험이 있는 학생과 음주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으로 분류한 후 두 집단의 음주기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8〉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공격성 영역과 사교성 영역의 결과인데, 공격성 영역에서는 음주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들의 평균값이 음주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의 평균보다 높은 반면, 사교성 영역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즉, 음주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음주경험이 있는 학생들에 비해 음주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공격성) 음주가 자신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기대하는(사교성) 정도가 낮았다. 이는 음주경험이 음주에 부정적인 기대를 약화시키고 긍정적인 기대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나 긴장감소영역의 차이를 보면, 음주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음주경험이 있는 학생들보다 음

〈표 8〉 음주경험 유무에 따른 음주기대의 차이

	공격성		사교성		성		긴장감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유	2.58	2.35	1.61	1.74	0.62	0.97	0.77	0.87
무	3.80	2.25	1.25	1.55	0.67	0.98	0.90	0.89
t 값	-8.73***		3.53***		-0.96		-2.47*	

\* p<.05, \*\* p<.01, \*\*\* p<.001

주- 긴장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약물남용예방교육과 음주기대

〈표 9〉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약물남용예방교육을 받은 조사대상자와 예방교육을 제공받은 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음주기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표 9〉의 결과는 앞의 결과들과는 달리 두 집단간의 음주기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현행 음주 및 약물남용예방교육이 청소년들의 음주에 대한 기대를 수정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다. 선행연구들(정지연, 1998; 한국대학생 알코올문제 예방협회, 1998)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음주 및 약물남용예방교육은 1년에 1회 또는 2회 정도 비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교육 내용도 알코올 및 약물남용의 폐해만을 단순히 전달하고 있다. 예방프로그램의 모델은 정보모델, 정서모델, 사회영향모델로 구분되고 있으나 약물과 약물남용의 결과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현행 예방프로그램은 정보모델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정보모델의 경우 효과성이 검증되고 있지 못해 우리나라 예방프로그램의 대폭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표 9〉 음주 및 약물남용예방교육의 유무에 따른 음주기대의 차이

	공격성		사교성		성		긴장감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있다	2.68	1.96	1.44	1.70	0.62	0.95	0.82	0.89
없다	2.53	1.98	1.49	1.65	0.66	1.00	0.84	0.87
t 값	1.25		-0.43		-0.67		-0.33	

## 5. 결론

본 연구는 전국 중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그들의 음주기대를 고등학생의 음주기대와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음주기대와 음주기대형성과 관련 있는 요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의 경우 음주에 대해 부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었으며 음주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음주기대와 관련요인 간의 관계는 대부분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음주 및 약물남용 예방프로그램의 실천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그리고 저학년 학생에 비해 고학년 학생이 음주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는 예방교육을 조기에 실시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경우 연령이 증가하면서 부모의 지도 및 감독에서 점차 벗어나 음주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영향에 노출되는 정도가 심해지게 된다. 즉, 연령이 증가하면서 청소년 주변 환경 속의 음주와 관련된 장면(예: 친구의 음주행위, 유흥업소 등)을 관찰하는 빈도가 잦아지게 되며 그러한 장면에서 보다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특히 청소년이 관찰하는 음주와 관련된 장면이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결과와 연결될 때 청소년은 술에 대해 그릇된 상식과 음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갖게 되며 이는 결국 음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대중매체의 술 광고가 청소년의 긍정적인 음주기대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술 광고 자체는 청소년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주류산업계의 입장이므로 광고주와 예방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 광고에서 청소년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요소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잘못된 경로를 통해서 음주에 대한 지식과 기대를 형성하기 전에 조기 예방교육을 통해 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형성하여 줌으로써 음주에 대한 청소년의 호기심과 그릇된 기대를 올바르게 바로 잡아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족 또는 친척 중에 음주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중학생의 경우 그런 가족 또는 친척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보다 음주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통계에 의하면, 알코올중독자 자녀의 경우 그들이 성인이 된

후 음주문제를 가지는 비율이 13~25%로(Cotton, 1979, 재인용 Emshoff et al., 1999) 정상적으로 음수를 하는 부모를 둔 자녀보다 음수분제를 가지게 되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서 알코올중독자 자녀의 경우 음주문제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평균 이상이라는 의미로 일반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예방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문제를 가진 가능성이 높은 알코올중독자 자녀를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의 실시도 필요하다. 예방프로그램은 대상집단에 따라 보편적 예방프로그램(*universal prevention program*), 선별적 예방프로그램(*selective prevention program*), 지시적 예방프로그램(*indicated prevention program*)으로 구분되며(Institute of Medicine, 1994), 선별적 예방프로그램이 알코올중독자 자녀와 같이 청소년 음주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요인(부모의 음주문제)에 노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알코올 및 약물남용의 경우 재발률이 거의 70%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음주문제가 발생한 후에 개입하는 방안보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개입하는 방안이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것일 것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 중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음주 및 약물남용예방교육의 경험과 음주기대 간의 관계에 대한 결과이다. 위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본 연구에서 고려한 음주기대 형성요인과 중학생의 음주기대 간의 관계에 대한 결과는 선행이론과 경험적 연구결과들과 일치하고 있는 반면, 예방교육의 경험에 따른 음주기대의 4가지 영역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전혀 유의미하지 않았다.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현행 음주 및 약물남용 예방프로그램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교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행 예방프로그램의 경우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모델에 기초하고 있고 대부분 단기간(예를 들면 1시간 정도) 동안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예방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방식이 청소년의 음주행위를 강력하게 예측하는 요인인 음주기대의 변화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해석하여 본다. 앞으로는 효과성이 검증된 이론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예방의 효과는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결과가 제시하듯이 정기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청소년 음주 및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상과는 달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음주기대의 4가지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성별에 따른 고등학생의 음주기대의 차이를 분석한 윤희

미 등(1999)의 연구결과와는 대조적인 결과였다. 청소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면서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음주기대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여학생만의 그리고 남학생만의 음주기대의 특성을 파악해 주며 개입방안의 거발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후속 연구는 본 연구에 기초하여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과 환경요인을 포함한 통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여 청소년의 음주기대형성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김금희·박상학, 1996, “일부대학생들의 성격변인과 음주행동.” 《조선대 의대 논문집,》 21 (1), pp.87~99.
- 김용석, 2000, “대처수단으로서의 음주동기와 음주행위/음주둔제 간의 관계.”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 9집, 5~23.
- \_\_\_\_\_, 1999,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와 청소년 음주와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39호, pp.103~127.
- 김용석·박명숙, 2000, “청소년 둔제행동의 공통요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 청소년 음주와 비행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42호, pp.83~106.
- 류경희, 1998, “가족력, 대처방식, 음주기대 및 동기가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성지연, 1998, “학교 청소년 약물남용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 : 서울시 중·고등학교 양호교사 대상.”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윤혜미·김용석·장승욱, 1999, “음주효과에 대한 기대와 한국 고등학생들의 음주행위간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38호, pp.153~179.
- 이양원, 1995, “부모의 음주가 자녀의 음주행동이 미치는 영향 - 충동성 및 음주기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장승욱, 2000, “청소년기 문제성 음주 실태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42호, pp.372~396.
-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 1998,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알코올 둔제 예방프로그램 거발 최종 보고서》.
- 홍종필, 1989, “대학생의 술에 대한 기대가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Abrams, D.B. & Niaura, R.S.. 1987. Psychological Theories of Drinking and Alcoholism. In H.T. Blane & K.E. Leonard (eds.), *Psychological Theories of Drinking and Alcoholism*, New York: Guilford Press.
- Ahmed, S.W., Bush, P.J., Davidson, F.R., & Iannotti, R.J. 1984. "Predicting Children's Use and Interactions to Use Abusable Substances."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Anaheim, C.A.
- Aitkin, P.O., Eadie, D.R. Leather, D.S., McNeill, E.J., & Scott, A.C. 1988. "Television Advertisements for Alcoholic Drinks Do Reinforce Under-Age Drinking." *British Journal of Addiction*, 83. pp.1399~1419.
- Atkin, C., Hocking, J., & Block, M. 1984. "Teenage Drinking: Does Advertising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Communication*, 34(spring), pp.157~167.
- Baldwin, A.R., Oei, T.P.S., & Young, R. 1993. "To Drink or Not to Drink: The Differential Role of Alcohol Expectancies and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in Quantity and Frequency of Alcohol Consump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7. pp.511~530.
- Bandura, A. 1977. "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 Rev.* 84. pp.191~215.
- Beck, K.H. Thombs, D.L. & Summons, T.G. 1993. *The Social Cognitive Theory*, N.J: Prentice-Hall, Inc.
- Brook, J. S., Whiteman, M., & Gordon, A. S. 1983. "Stages of Drug Abuse in Adolescence: Personality, Peer, and Family Correlates." *Developmental Psychology*, 19, pp.269~277.
- Brown, S.A.. 1985. "Expectancies vs. Background in the Prediction of College Drinking Patter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pp.123~130.
- \_\_\_\_\_, Goldman, M.S., & Christiansen, B.A. 1985. "Do Alcohol Expectancies Mediate Drinking Patterns of Adul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pp.512~519.
- Budd, R. J. & Spencer, C.P. 1984. "Predicting Undergraduates' Intentions to Drink."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5(1). pp.179~183.
- Bundra, P.C. & Vaux, A.C. 1988. "Social Drinking in Supportive Contexts among College Mal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t*, 17(2). pp.165~171.
- Christiansen, B.A. & Goldman, M.S. 1983. "Alcohol Related Expectancies vs. Demographic Background Variables in the Prediction of Adolescent Drinking."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2). pp.249~257.

- Christiansen, B.A., Smith, G.T. Roehling, P.M. & Goldman, M.S. 1989. "Using Alcohol Expectancies to Predict Adolescent Drinking Behavior After One yea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pp.93~99.
- Connor, J.P., Young, R., Williams, R.J., & Ricciardelli, L.A. 2000. "Drinking Restraint vs. Alcohol Expectancies: Which is the Better Indicator of Alcohol Problem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1(2), pp.352~373.
- Cooper, L., Russell, M., George, W. 1988. "Coping, Expectancies, and Alcohol Abuse: A Test of Social Learning Form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2). pp.218~230.
- Covell, K. 1992. "The Appeal of Image Advertisements: Age, Gender, and Product Differ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2(1), pp.46~60.
- Ellis, D.A. Zucker, R.A. & Fitzgerald, H.E.. 1997. "The Role of Family Influences in Development and Risk." *Alcohol Health & Research World*, 21(3), pp.218~6.
- Emshoff, J.G & Price, A.W.. 1999. "Prevention and Intervention Strategies with Children of Alcoholics." *Pediatrics*, 103(5). pp.1112~1120.
- Evans, D.M. & Dunn, N.J. 1995. "Alcohol Expectancies, Coping Responses and Self-Efficacy Judgemen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pp.186~193.
- Goldman, M.S., Brown, S.A., & Christiansen, B.A. 1987. "Expectancy Theory: Thinking about Drinking" In: Blaen, H. H., & K. F. Leonard (eds.). *Psychological Theories of Drinking and Alcoholism*, New York: Guilford press.
- Goldman, M.S., Brown, S.A., & Christiansen, B.A., & Smith, G.T. 1991. Alcoholism Etiology and Memory: Broadening the Scope of Alcohol Expectancy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10. pp.137~146.
- Grube, J. 1993. "Alcohol Portrayals and Alcohol Advertizing on Television." *Alcohol Health and Research World*, 17(1). pp.61~66.
- Hansen, W.B. & Graham, J.W. 1988. "Differential Impact of Three Alcohol Prevention Curricula on Hypothesized Mediating Variables." *Journal of Drug Education*, 18(2). pp.143~153.
- Institute of Medicine. 1994. *Reducing Risk Factors for Mental Disorders: Frontiers for Preventive Intervention Research*.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Johnstone, B.M. 1994. "Sociodemographic, Environmental, and Cultural Influences on Adolescent Drinking Behavior." In Zucker, R. G. Boyd & J. Howard (eds.). *The Development of Alcohol Problems: Exploring the Biopsychosocial Matrix of Risk*.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Research Monograph-26.



- Rockville, MD: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Kandel, D. B. 1984. "Marijuana Users in Young Adulthood."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1, pp. 200~209.
- Kelley, K.J. & Edwards, R.W.. 2000. "Image Advertisement for Alcohol Products: Is There Appeal Associated with Adolescents' Intention to Consume Alcohol?" *Adolescence*, 33(129), pp. 47~60.
- Lipman, J. 1991. "Sobering View: Alcohol Firms Put Off Public." *Wall Street Journal*, Aug. 27, p. B1.
- Oei, P.P.S., Fergusson, S. & Lee, N.K. 1998. "The Differential Role of Alcohol Expectancies and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in Problem and Non-Problem Drinker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Nov. pp. 704~711.
- Snyder, M. & DeBono, K.G.. 1985. "Appeals to Image and Claims about Quality. In Kelley, K.J. & R.W. Edwards, 2000. "Image Advertisement for Alcohol Products: Is There Appeal Associated with Adolescents' Intention to Consume Alcohol?" *Adolescence*, 33(129), pp. 47~60.
- Smith G.T., McCarthy, D.M. & Goldman, M.S.. 1995. "Self-Reported Drinking and Alcohol-Related Problems among Early Adolescents: Dimensionality and Validity over 24 Month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6, pp. 383~394.
- Wada, K. Price, R.K. & Fukui, S. 2000. "Reflecting Adult Drinking Culture: Prevalence of Alcohol Use and Drinking Situations among Japanese Junior High School Students in Japan."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9(4), pp. 381~86.
- Young, R. & Oei, P.P.S. 1996. *Drinking Expectancy Profile: Test Manual*, Herson, Queensland Australia: In Connor, J.P., R. Young, R.J. Williams & L.A. Ricciardelli, 2000. "Drinking Restraint vs. Alcohol Expectancies: Which is the Better Indicator of Alcohol Problem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1(2), pp. 352~373.
- Zucker, R.A. 1994. Pathways to Alcohol Problems and Alcoholism: A Developmental Account of the Evidence for Multiple Alcoholisms and for Contextual Contributions to Risk. In Zucker, R.A., G. Boyd, & J. Howard(eds.), "The Development of Alcohol Problems: Exploring the Biopsychosocial Matrix of Risk,"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Research Monograph-26. Rockville, MD: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Middle School Students' Alcohol Expectancies and Related Factors

Kim, Yong-Seok (Assistant Professor,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Yoon, Hye-Mee (Associate Professor, Chungbook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compare middle school students' alcohol expectancies with high school students' alcohol expectancies and to identify factors (family history of alcohol problems, television advertisements, age, gender, drinking experience, alcohol prevention education) related to their alcohol expectancies. A total of 1,164 middle school students in seven metropolitan areas in Korea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major finding of this study was that the respondents scored higher on negative alcohol expectancies than high school adolescents. As found in previous studies, factors related to adolescents' alcohol expectancies were also significantly related to respondents' alcohol expectancies in this study. Respondents who had family histories of alcohol problems, had drinking experiences, and were older expect drinking in a more positive manner. This study also found that alcohol advertising affected respondents' alcohol expectancies. However, this study found that current substance abuse prevention programs did not affect respondents' alcohol expectancies at all. This finding may suggest that some changes on current prevention programs should be needed in order to be more effective. Finally the result on the relationship gender and alcohol expectancies in this study was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Female respondents expected drinking more positively than male counterparts. This study suggests that further studies on this issue are necessary.